



16면

남원 120만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 전주매일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음 12월 29일) 제27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밈그림'

# 코로나19 경제 위기 돌파

시,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5년까지 4조82억 투입  
디지털 68개·그린 67개 등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총 4조여 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산업 확보를 목표로 한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의 밈그림을 내놓았다.

디지털 인재 양성에 집중하면서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도시숲을 넓히고 수소전기차를 늘려 녹색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9일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82억원을 투입해 ▲디지털뉴딜 구축(디지털 인재·인프라·경제) ▲그린뉴딜 전환(녹색 공간·자원·산업) ▲상생연대뉴딜(사회·고용안정망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8대 전략, 16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행복 도시'를 비전으로 한 이 종합계획은 지역 내 민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등 국가사업들과 연계 추진한다는 게 특징이다.

먼저 디지털뉴딜 분야에는 68개의 핵심과제에 9,009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J-디지털 교육 밸리 구축과 디지털 특성화 교육 운영으로 디지털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디지털 트윈기반의 도시문제해결 서비스와 ICT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연관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역회계 중심의 디지털 로컬경제 선순환 기반과 XR-융합사업,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한글과컴퓨터와의 협력사업으로 ▲3D버추얼 전주 구축(30억원) ▲전주시 스마트시티 분석서비스(11억) ▲3D버추얼 전주 기반 행정 인허가 서비스(10억



최명규 전주부시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9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총 4조82억 원을 투입하는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3,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분야의 경우 67개 핵심과제에 2조8,652억원이 투자된다. 시는 도시숲 10대 거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박람회 등을 추진해 녹색 생태계를 확충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밀려있는 팔복동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한다. 또 2022년까지 친환경 수소차 5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개소를 확충하면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자립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디지털 3040 계획에 맞춰 태양광 보급 지원, 그린 집수리사업,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수소연료전지 제조 지원센터 구축,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팜과 제조웨이스트 세척장 구축 등으로 녹색 일자리 확충에도 힘쓴다.

사회연대와 협력, 협업을 강화하는 상생연대뉴딜에는 2,42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형 주거복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고 없는 도시 사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고용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탄소줄이기 9대 실천운동 등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그린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펼쳐며 선제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선 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꾸린 뉴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주형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시는 전주형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신규 사업의 경우 정책동향에 적합하도록 당위성 등 논리를 보강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공공기관·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꾸준히 유지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역주도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기로 했다.

최명규 부시장은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위기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마음만큼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

설 연휴 관계로  
14일까지 신문 쉽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정부 민간합동지원단 현장실사가 9일 명진 군산공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정부 실사단, 강임준 군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군산 신규공장에서 생산할 전기 버스, 트럭 등을 살펴보고 있다.

##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정부 지정 '초읽기'

민관합동지원단 현장 실사  
성장 가능성 등 '긍정 평가'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이달 내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정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져, 2월 중 지정이 유력하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합동지원단은 이날 (주)명진과 새만금 산단 제1공구를 방문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정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현장실사에는 정부 민간합동지원단(12명, 명진 바공개)과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5개 참여기업 대표, 민주노동당 군산 지부장, 한국노총 군산지부 의장 등 지역 노사민정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실사는 먼저, (주)명진 군산공장을 방문해 올 4월부터 위탁생산할 다나고 VAN 등 생산공장 설비 준비현장을 둘러보고, 명진의 사업 사업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새만금 산단 제1공구에서는 에디스모터스(주)의 신규공장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주)대창모터스, (주)엔피에스코리아, (주)코스타의 신축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생산차량 전시·시승 행사에는 군산 신규공장에서 생산할 에디스모터스(주)의 SMART T1(EV 트럭), SMART T0930(EV 버스)과 (주)대창모터스의 다나고 VAN·다나고3(EV 트럭), 엔피에스코리아의 그린보이(EV 골프 카트), 칸타타(전동 스쿠터) 등이 전시됐다.

현장점검에 이어 진행된 사업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은 8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기업의 생산·판매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간합동지원단은 참여기업의 생산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등을 긍정·평가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현장실사 인사를 마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북을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의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 도, 설 명절 소상공 대상 2000억원 신속 집행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2,000억원의 자금을 풀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및 자활근로사업 611억원, 농·축산업 분야 514억원, 소상공인(일자리)지원 152억원, 하천유지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33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9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500억원을 대기 자금으로 준비해 공사 및 물품 대금이나 사회복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라진 지방계약법을 준수해 기성, 준공 등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성금, 준공금, 노무비 등의 대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3,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관공 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장비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하고,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차치행정국장은 "설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새로운 시작!

# 한국해상풍력

시범단지 발전사업허가 (2021. 2. 2)  
"부안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해상풍력(주)  
Korea Offshore Wind Power